

임플란트의 조기실패에 대한 임상증례

남기윤*, 엄흥식, 장범석

강릉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

장기적인 높은 성공률 및 지속적인 연구 분야의 확대로 골유착성 임플란트의 효능이나 예지성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어졌다. 현재 임플란트는 초창기에 시도되었던 전체 무치악은 물론 부분 무치악과 단일 치아 결손부의 수복치료방법으로 첫 번째로 고려되는 치료 계획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, 환자들로부터의 임플란트에 대한 치료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.

수많은 임상 연구들을 통해 골유착 재료의 개발과 개선, 그리고 임플란트의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술식의 정립으로 임플란트 성공률은 높아져 왔지만, 임플란트 기술이 많아진 만큼 그 실패나 합병증도 경험하게 된다.

임플란트의 실패를 시기에 따라 분류하면, 임플란트 식립 후 적절한 골유착을 얻지 못하여 기능적 부하를 가하기 전에 임플란트를 제거하게 되는 조기실패(early failure)와 골유착은 얻었으나 기능적인 부하가 가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골유착을 유지하지 못하여 임플란트를 제거하게 되는 지연실패(late loss)가 있다.

임플란트의 실패와 합병증은 다양한 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. 이 중 주된 3가지 원인요소로 감염(infection), 손상된 치유(impaired healing), 과부하(overload)를 들 수 있다.

본 증례보고에서는 2002년 2월부터 2003년 4월까지 100명의 환자에게 식립한 250여개의 임플란트 중, 조기 실패로 제거한 5명의 11개 임플란트에 대해 추정되는 실패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.